

CONNECTING DOTS



SUNBO
ANGEL
PARTNERS

선보엔젤파트너스 소식지 #04

선보엔젤파트너스, 싱가포르 오피스 설립 싱가포르VC로부터 '다나그린' 후속투자 유치도 진행해



5월 28일 싱가포르 VC, Expara로부터 포트폴리오사인 “다나그린(3D 세포배양기술)”의 후속투자를 유치 하였습니다. 한편,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싱가포르 벤처 생태계의 중심인 Block 71에 거점을 두고,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및 해외의 우수한 스타트업 발굴 및 직접 투자를 통해 기술, 산업, 투자의 글로벌 한 연결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7월부터 싱가포르 현지오피스를 오픈하며, 향후 싱가포르 창업생태계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팀 후속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연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보엔젤, 새로운 CI 소개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제조업 생태계 혁신과 부활을 위한 디딤돌 역할로서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 회사입니다.

Connecting Dots이라는 모토 아래, 기술, 산업, 투자 생태계를 글로벌하게 연결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신뢰와 밝은 비전을 의미하는 푸른색을 메인색으로 선정하여 선보엔젤파트너스만의 CI를 완성하였습니다.

선보공업 월드클래스 300 선정



월드클래스 300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기업의 선순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부산지역 선정 기업은 선보공업, 펄릭스테크입니다. 선정 기업은 기술 혁신을 위한 R&D(5년간 연 15억원 이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5년간 연 7,500만원), 금융·인력·지식재산권(IP)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고병철 공동대표 취임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는 더 큰 성장을 위해 KTB네트워크 출신 고병철 상무를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했습니다. 또한,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사외이사로서 두 회사의 긴밀한 협업과 네트워크 되어 있는 중견기업과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 고병철 대표 인터뷰 : 7면



라운드테이블 6월 정기모임 개최

파트너 중견기업 정기모임이 6월 27일 열렸습니다. 이번 달 모임은 테크분야 스타트업 엑세스랩(ARM기반 데이터센터 서버) 과 뉴로메카(협동로봇)의 IR, UNIST 최재식 교수 의 <AI기술 소개 및 산업분야 적용> 과 오종훈 대표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 사례>, 패스트트랙아시아 박지웅 대표의 <한국기업, 스타트업 투자 노하우 쌓아라>등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중견기업들 및 산업에 기술스타트업들을 사업적으로 연결하고, 공동투자하여 빠르게 성장시키는 투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KC Startup Plus 1기 워크샵



SKC, 선보엔젤파트너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신소재 분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SKC Startup Plus'에서 5팀을 선발, 공동 보육을 진행합니다

총 85개 지원 기업 중 선발된 5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 자금 총 1억원을 지원하고 소재 분야에서의 기술개발과 인프라공유,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SKC Startup Plus' 1기 워크샵 행사(5월 24~25일)를 시작으로 소재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울산시 대학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작



울산시가 주관하여 선보엔젤파트너스와 UNIST, 울산대학교, 미래에셋대우가 함께 울산 지역의 우수한 기술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2월에는, UNIST와 함께 발굴한 우수한 기술 창업팀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글로벌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국내외 VC와 중견기업, 관련된 기업들을 함께 연결하고자 합니다.

5월 30일에는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 사업의 성공과 적극적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18 현대공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미래의 자동차 산업에 이끌어나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창업 및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에게는 현대공업의 사업 협력 기회와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투자 기회 및 지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서류접수 2018. 5.16. ~ 6. 30. (2차에 걸친 선발공고예정, 조기 접수시 마감)
예선발표 2018.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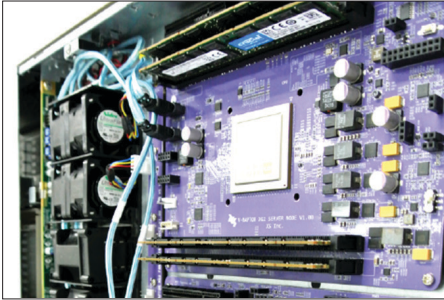
주최/ 주관 (주)현대공업, 선보엔젤파트너스, UNIST,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2018 현대공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현대공업과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미래의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1차로 43건의 창업팀이 지원했습니다.

우수 아이디어는 UNIST 디자인팀과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좀더 발전시키고, 현대공업의 사업 협력 기회와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투자 기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신규 포트폴리오사



엑세스랩

ARM 기반의 데이터 서버 개발. 기존의 데이터 서버 대비 저전력, 고효율 구현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존 데이터 서버 사용 기업들에게 운영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의 효용 제공



드림에이스

자동차 보안 이슈로 완전히 분리된 인포테인먼트와 구동부의 SW 를 연결하는 AGL 기반 플랫폼 구축. 실시간 주행정보, 주행 중 부품상태 등 실시간 차량 정보활용 가능한 솔루션 제공



코멘토

인공지능 기반 채용 매칭 서비스. 특히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인재 채용에 있어서 구인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직무 능력, 기존 고성과자의 DB 등을 바탕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재 Pool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CEM (예비창업팀 Line up)

스마트 PCT 카본 유닛을 적용한 저전력형 자동차 발열시트 소재 개발 / 현대공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

SML (예비창업팀 Line up)

리튬 이온 2차전지 단결정 양극 소재 개발 / UNIST

사피엔반도체 (Line up)

Micro 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드라이버 개발 / UINIST

SB솔루션즈 (Line up)

인공혈관 기반의 비침습적 무채혈 혈당 측정 디바이스 / UNIST

신규 TIPS 포트폴리오

2월	내일해	OLED 패널 결함 검사를 위한 초정밀 3차원 반사형 Inspecscopy 개발
3월	드림에이스	Automotive Grade Linux(AGL) 기반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운영체제 개발
3월	다나그린	3D 세포배양 지지체를 활용한 체외 독성 테스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오가노이드 개발
5월	엑세스랩	저전력 고성능 데이터센터용 ARM 서버 및 독립형 BMC 모듈 개발
6월	코멘토	구직서류 및 현직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직무적합도 측정 및 채용평가시스템

대마도 워크샵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 성장하기 위한 안건과 발전 방향 협의를 위해 6월 14일~15일 일정으로 대마도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워크샵에서는 신규직원들의 포트폴리오 밸류업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투자 기업의 성장 전략 실행 결과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선보공업 본사 교육



6월 7일, 선보공업 본사 방문을 통해 조선 산업 분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산업의 인사이트와 공장 투어를 통해 조선 제조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또한 선보공업 창업주인 최금식 회장님으로부터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설립 동기와 창업가로서 어려웠던 점, 그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전체회의 & 체육대회

5월 8~9일, UNIST에서 5월 전체회의 및 내부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2기 공채로 입사한 신규입사자와의 팀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신규 입사자들의 포트폴리오 밸류업 프로젝트 중간 발표 및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의 고병철 신임 공동대표의 특강 및 네트워킹 자리도 함께 가졌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대표는 4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지역 내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처분을 받아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아이들에게 전달되며, 향후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자 합니다.

선보등대재단, 우간다, 네팔, 티벳, 볼리비아 등 학교짓기 후원 활동

선보등대재단은 2013년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최금식회장님을 비롯하여 선보그룹에서 20억을 출연하여 설립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여러나라에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14년 아프리카 우간다 학교짓기, 15~16년 아시아 네팔 학교짓기, 16~17년 우간다 학교 및 화장실 짓기, 17년 아프리카 콩고 학교짓기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남미 볼리비아에 학교짓기 후원을 통해 글로벌지역공동체 재건 및 사회적 가치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울산 오피스



U-STAR 2기 수료식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중공업, UNIST, SKC와 함께 진행한 U-star 2기가 성공리에 종료 했습니다. 6개월간의 여정 끝에 UNIST 3개팀이 TIPS 에 선정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3개팀도 올해 TIPS선정과 후속투자 유치를 위해 함께 준비 중입니다.

UNIST 동아리 후원

봉사동아리 단비와 시제품을 제작하는 동아리 디노 2곳에 150만원씩 1년간 후원을 하였습니다. 디노는 현대공업 디자인 공모전에도 함께 협업하고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오피스



광주특구 액셀러레이팅 사업 선정

울초 부터 광주 GIST에 오피스를 설립하여 지역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광주특구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되어 전남대기술지주와 아이파트너즈와 함께 광주 지역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을 발굴, 투자, 보육의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 GIST,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주요 대학과 광주 T P, 청년창업사관학교, I-PLEX등 광주지역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남권 우수 기술기반 창업자를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호남권 중견기업 네트워킹 등 호남 지역에서의 생태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한국제 7호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COMBINED INVESTMENT -

라이트하우스 SPAC 상장

한국 제7호 스팩(SPAC)"이 5월 11일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제 7호 스팩은 발기인 한국투자증권 등과 함께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가 최대주주로 참여했고, 향후 상장을 원하는 기술 기업을 찾고, SPAC을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



Global Accelerator Conference 발표

한국무역협회가 한국경제신문등과 함께 5월 23일, 24일, 코엑스에서 '2018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컨퍼런스&데모데이'를 개최 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국내 액셀러레이터 대표로 국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및 산업과 연결 시도를 위한 협업 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터 열전(列傳)인터뷰



<오픈이노베이션협회>에서 만든 오픈 이노베이터 열전 인터뷰 시리즈에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대표의 인터뷰가 연재되었습니다.

최영찬대표는 지난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선보엔젤에서 파운더스하우스, 라이트하우스까지 중견제조기업 중심의 기술-산업-투자를 잇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고민과 실행을 함께 한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의 생각은 깊이가 남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동남권(부산이나 울산 등)을 시작으로 서남권(광주나 목포 등)으로 지역을 혁신시키고자 한다. 그후에 나아갈 곳은 싱가포르나 유럽 등의 글로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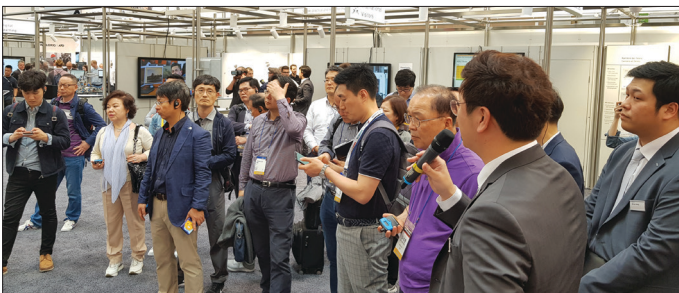
포브스 5월호 - 최금식 회장 & 최영찬 대표 인터뷰



Forbes Korea 5월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후계자의 길> 특집 기획 코너에 선보그룹 창업자 최금식회장&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대표의 인터뷰가 바람직한 승계의 모델로 소개 되었습니다. 국내의 중견기업 중에서도 후계승계의 롤모델로 꼽히는 선보공업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이 어떻게 후계승계를 준비하는게 좋은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되었고,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추구하는 철학적 방향과 다른 중견기업에게 시사점이 상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내가 후계자라고 해서 임직원들이 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임직원이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창업가가 능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2018 독일 하노버 MESSE 참관 < 산업간 융합 : 연결 그리고 협업 >



하노버산업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의 원형에 해당하는 Industry 4.0 전략이 발표된 곳으로 특히 제조산업 혁신 분야에서 전세계 기술들이 소개되는 자리입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과 함께 참관하며, 머신비전, 제조용 로봇, 센서 분야의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들의 동향을 보며, 국내 제조 산업에서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산업 관계자 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연결 지점을 글로벌로 넓혀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고병철 대표이사 인터뷰



KTB네트워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는데, 라이트하우스로 오신 계기가 있다면?

이 질문은 “오랫동안 다니던 KTB네트워크를 왜 그만두게 되었느냐” 와 “왜 라이트하우스인가” 로 나눠 대답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KTB네트워크에서 입사해 벤처투자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벤처 조합의 대표펀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인터넷 버블부터 최근 가상화폐 붐까지 봤습니다. 18년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생각보다는 환경에 맞춰 스스로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일이 편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삶겨지는 개구리가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더 익숙해지기 전에 도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의 벤처투자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명 사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속셈이 드러납니다. 장기투자가 당연한데 단기간 성과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자본에 정부자금을 합쳐 레버리지를 바랬습니다.

최영찬 대표는 달랐습니다.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최금식 회장님도 벤처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구별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회사운영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투자사는 역량이 있는 심사역이 모여 함께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심사역을 성과를 모은 것이 회사의 성과입니다. 여기에 개별적으로 이룰 수 없는 성과를 협력해서 만들어 내는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수한 심사역을 모으고,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또 혼자보다 협력해서 만들어진 성과를 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협력 대상은 지금의 동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동료도 있습니다. 성과와 실패, 현장 경험을 회사에 축적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런 유사한 경우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자원칙 1순위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창업자의 진정성과 이해관계일치가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곳곳하게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면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나 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짧은 시간은 열정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긴 항해 끝에 등대 불빛이 보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 일을 왜 하는 지,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과 행동에 정성이 배어 나옵니다.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창업자, 직원, 투자자들, 각자의 진정성이 잘 뭉쳐져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적절히 설정되어 서로 협력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하우스, 선보엔젤파트너스 임직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회사에서는 개개인의 역량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하면 혼자서 엄두도 못낼 일도 해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라이트하우스와 선보엔젤파트너스도 같은 관계입니다. 서로 발전을 자극하고 협력합니다. 두 회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리잡고 협력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회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규오피스 소개

선보엔젤파트너스 부산 & 싱가포르 오피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지난 1월에 부산오피스를 이전하며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였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갖춘 센텀시티 스카이버즈 건물 28층에 스타트업과 파트너사 등이 입주 가능하며 워크샵, 세미나, IR 등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다양한 이벤트 개최가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7월부터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피스 및 숙소를 두어 전담인력이 상주를 하며 싱가포르 네트워크 구축, 현지시장 파악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하는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및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 서울사무소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가 올해 1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서울 사무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주택을 개조한 이곳은 "HOME AWAY FROM HOME"이라는 테마로 카페테리아, 회의실, IR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국내 투자자의 일반적인 오피스와는 차별화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고병철 공동대표의 취임과 함께 보다 풍부한 네트워크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또다른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